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정 학생에 도움

도교육청, 올 100개교 175명 대상 운영  
“한국어 실력 향상· 학교 적응에 도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서 매년 실시하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이 다문화가정 학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초·중·고 100개교, 17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에게 학교로 찾아가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파악 신청하면 도교육청에서 한국어능력 진단을 거쳐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2023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신규 운영교 및 만기 예정교 중 19개교를 선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관련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고 밝혔다.  
군산 문창초등학교 담당교사는 “수업을 통해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고 있어 가정에서도 민족을 표하고 있다”면서 “전문성을 가진 강사와 1:1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김제봉남초 한국어교육 강사는 “한국어교육 수업시간 확보 및 외국인 학생과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성환은 민주사민교육과장은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가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한국어교육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간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가 지난 19일 온누리홀에서 제2차 미래전북포럼을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탄소중립 위한 배터리·수소 기술

전주대, 제2차 미래전북포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9일 온누리홀에서 제2차 미래전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전북포럼은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참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싱크탱크 네트워크다.  
이번 포럼은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등 전기화학공학 분야의 석학인 서울대학교 성영은 교수(한국전기화학회 회장)를 초청해 ‘탄소중립을 위한 배터리와 수소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성 교수는 배터리와 수소 기술

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이런 신기술이 어떻게 국가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에 산·학·연과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을 강조했다.  
김상진 산학협력단장은 “전주대학교는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지반소멸 대응 의제를 발굴 도출하기 위해 미래전북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3일 개최되는 제3차 미래전북포럼은 (재)전북테크노파크와 전주대학교가 공동 주관한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전국 누적 합격률 1위  
손해사정사 3명 합격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는 올해 3명의 손해사정사 합격자를 배출, 보험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국 10여 개 대학 중에서 27년째 누적 합격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시행된 제46회 손해사정사 시험 최종 합격의 주인공은 이준호(18학번)·황장연(18학번)·최진우(16학번) 씨로, 특히 이준호·황장연씨는 현재 재학 중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전문직역사로, 1~2차 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이윤석 교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특화된 교과과정과 해당 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진, 오랜 기간 운영되고 있는 손해사정사 준비반 ‘장복수’를 통한 선후배 간 밀착지도, 각종 장학 혜택 및 기숙사 제공, 업계에서 활동 중인 손해사정사 선배들과 재학생들의 활발한 교류가 매년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는 손해사정사를 비롯한 보험 관련 자격증 취득에 특화된 과정이 강점으로, 실무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며 금융보험의 메카로 입지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신산업분야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도교육청, 진로전담교사 등 대상... 스마트팜 등 직접 체험

도내 진로전담교사 등 60여 명이 스마트팜과 메타버스를 직접 경험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국농수산대학과 부안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에서 신산업 및 진로체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스마트팜과 메타버스 체험을 통해 농업 및 디지털 생태계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특히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스마트팜 관련 강의와 메타버스 기술을 잘 구현해 놓은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에서의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국농수산대학에 참여해 박노복 교수는 특강에서 ICT 온실을 자동 환경 제어시스템으로 구축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스마트팜은 미래 식량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산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 장호영 부관장은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은 메타버스와 가상융합기술의 원리를 이



해할 수 있는 메타버스기술관, 변화하는 미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라이프관, 물인형 미디어아트를 경험할 수 있는 가상세계홀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곳을 찾은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이고, 미래의 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농업의 미래인 스마트팜과 디지털 생태계인 메타버스를 우리 지역에서도 체험할 수 있고, 이를 학교의 진로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지역의 신산업 분야의 우수한 진로체험처를 학교와 학생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지난 19일 전북대학교 친환경에너지변환연구실에서 열린 기술이전 우수 실험실 지정 현판식.

## 기술이전 우수 실험실 발굴·육성

전북대 친환경에너지변환연구실, 제1호 실험실 선정  
올 글로벌 반도체기업에 기술 이전... 우수제품 개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기술이전 우수 실험실 발굴·육성에 나섰다.  
전북대에 따르면 산학협력단(단장 손정민)이 친환경에너지변환연구실을 제1호 우수 기술이전 실험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실은 전자식 가변 커패시터를 통한 반도체 공정 시스템, 특히 기술을 올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인 MKS 인스트루먼트에 이전, 이를 통해 반도체 관련 우수 제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술은 반도체 공정에서 획기적인 시간 단축이 가능해 향후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친환경에너지변환연구실의 기술이전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교육부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지원(BRIDGE3.0) 사업,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IINC3.0) 사업, 특허청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창의적 자산을 발굴하고 기술을 고도화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손정민 단장은 “이번 기술이전 우수 실험실 지정을 통해 대학 연구실의 우수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러한 지정과 지원이 기술료 재투자 기반으로 한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 연구실의 기술을 이전받은 MKS 인스트루먼트 한국지사인 MKS PSA 한성호 대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리더인 MKS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전북대학교의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질 높은 방과후 교육 돌봄 통합서비스 마련

전북 늘봄학교 추진단 구성... 첫 회의 개최

질 높은 방과후 교육 및 돌봄 통합서비스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북 늘봄학교 추진단을 구성, 지난 20일 내·외부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위원으로는 교직원과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가, 외부위원으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학부모 등이다.  
이에 따르면 추진단은 전북형 늘봄학교 정책 제언 및 자문 기구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늘봄 시스템 구축

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10~12월 중 두 차례의 협의회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현장의 의견 수렴과 지역 현안 파악 △전북형 늘봄학교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 마련 △타시도 교육청 운영 사례 및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전북 특성에 맞는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은성 기자

##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 방향 모색

도교육청, 전북미래학교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 연수

수업혁신을 통한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 방향을 모색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0~21일 1박2일 일정으로 정읍 수곡초등학교, 남원수화체험센터 등에서 전북미래학교 교육전문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북미래학교 공개의 날 참관 △남원수화체험센터 활용과 실제 에듀테크 수업 활용 및 웨일북 실습으로 구성, 교육전문직원의 현장 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30여 명의 교육전문직원이 참여한 역량강화연수는 정읍 수곡초를 방문해 미래학교의 모습과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참가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수곡초에서는 △에듀테크 교육활동 공개 △학교 자율 탐방 △온세기로 생태환경 교육행사(생태맞춤 추수활동) 등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의 지원 노력과 확산 노력을 발표했다.  
/정은성 기자



또 남원수화센터에서 진행된 에듀테크 수업 활용 및 웨일북 실습에는 등산초 전주영 교사, 순창발명센터 이창민 교사가 강사로 나서 교실수업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소그룹 분임 토의에서는 △편리한 사용자 관리 가능 △수업 관리도구 및 협업도구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연계 수업 △미래캠퍼스 로 디자인을! 퀴즈앤으로 수업에 활기를! 플로바 데빙으로 동시 낭송 수업! 등 정책 공감대를 확산해 가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우명수 교수  
국제컨퍼런스서 ‘우수논문상’

전주기전대 우명수(임상병리과) 교수는 최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에서 2023 KAMT 전북)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3 KAMT 전북은 대한임상병리학회 주최하고 전라북도임상병리사회 주관해 미국과 일본 등 35개국 임상병리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임상병리학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내 임상병리학의 연구수준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국가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우명수 교수는 ‘허혈성 뇌졸중에서 심혈관 질환과 심방세동을 위한 혈청 바이오 마커: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이라는 주제를 발표, 전라지방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우 교수는 “이번 수상으로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또 기쁘고, 본교 임상병리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술 포스터 및 학술 구연을 준비해 다음 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식물방역대학원  
제3기 신입생 모집

전북대학교 식물방역대학원이 제3기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식물방역대학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에 선정, 경북대, 전남대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각 대학에 설립한 특수대학원이다.  
식물방역대학원 주관기관인 전북대는 석사학위 과정생 10명을 뽑는다. 입학원서 접수는 11월 8일부터 15일까지다. 12월 8일 오후 1시 30분 구술고사를 거쳐 12월 22일 오후 5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입학원서는 전북대 식물방역대학원 홈페이지(<https://gpq.jbnu.ac.kr/gpq/index.do>)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한편, 식물방역대학원은 주관대학인 전북대가 ‘1기’인 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경북대는 ‘검역병해충 관리기술 개발’을, 전남대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적 방제 기술 개발’ 등을 맡아 분야별로 전문 교육이 이뤄진다. 병해충의 예방은 전북대가, 검역은 경북대, 방제는 전남대가 공통과정을 운영한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여교수회  
진로체험 멘토링 실시

국립군산대학교 여교수회(회장 ONS대학 식품영양학과공 유현희 교수)는 최근 2023학년도 전공연계형 봉사활동 지원사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군산 청소년 자치공간 달그락 학생들과 ‘진로체험 멘토링’을 실시했다.  
유현희 교수팀은 ‘항토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체험을, 김석순 교수팀은 ‘고체향수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전공의 교수와 재학생이 멘토가 돼 전공 밀착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체험에 참여한 중고생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분야를 탐색하고 교수진 컨설팅을 직접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유현희 회장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군산대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형성하도록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군산대 입학에도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김필근 기자